

강윤지 연구원

요약

미국은 메디케이드(Medicaid)를 통해 저소득층에게 의료 혜택을 제공하고 있지만, 가입 기준 범위 및 복잡한 절차로 인해 가입과 유지가 어려웠던 한편, 코로나19 확산 이후 미국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은 증가함. 미국 바이든 정부 및 주정부가 메디케이드 자격 기준을 완화하고 가입 절차를 간편하게 개선함에 따라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저소득층이 증가함. 메디케이드 기준 완화를 통해 미국 내 저소득층 건강 상태의 개선 효과가 있다는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음

- 미국은 메디케이드(Medicaid)를 통해 저소득층에게 의료 혜택을 제공하고 있지만, 가입 기준 범위 및 복잡한 절차로 인해 가입과 유지가 어려웠던 한편, 코로나19 확산 이후 실질적으로 인해 미국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은 증가함
 - 미국은 저소득층에게 건강보험인 메디케이드를 제공하고 있지만, 정기적 갱신 과정의 복잡성 문제로 인해 메디케이드 가입 및 보장 유지가 어려웠음¹⁾
 - 매해 메디케이드 각 개인의 자격이 재평가되며 이를 위한 소득 및 거주지 정보 제공이 요구되나 메디케이드 문서가 우편으로 가는 경우 주소지 오류, 반환 문제, 인력 부족 등으로 인한 등록 및 유지 문제가 발생함
 - 워싱턴 대학 사회 정책 연구소의 조사 결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소득 감소 및 실직을 보고한 저소득층 비율은 29%로 소득 계층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²⁾
 - Commonwealth Fund의 설문조사³⁾ 결과, 2021년 기준 무보험자 비율은 연방빈곤수준⁴⁾(Federal Poverty Level) 138% 이하가 16%, 138~399% 사이는 11%, 400% 이상은 5%였고, 의료비 문제를 보고한 결과에도 연방빈곤수준 250% 미만은 47%, 250% 이상은 31%로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미국 바이든 정부 및 주정부가 메디케이드 자격 기준을 완화하고 가입 및 갱신 절차를 간편하게 개선함에 따라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저소득층이 증가함
 - 바이든 정부는 메디케이드 자격 소득수준이 기존 100% 이하에서 최대 138% 이하인 경우로 확대하여 메디케이드 가입 자격 기준을 완화하고⁵⁾ 가입 절차를 간편하게 개선하도록 하는 규칙을 발표함⁶⁾

1) NPR(2022. 2. 14), "Why millions on Medicaid are at risk of losing coverage in the months ahead"

2) Brookings(2020. 7. 13), "COVID-19 job and income loss leading to more hunger and financial hardship"

3) Commonwealth Fund (2021. 7. 16), "As the Pandemic Eases, What Is the State of Health Care Coverage and Affordability in the U.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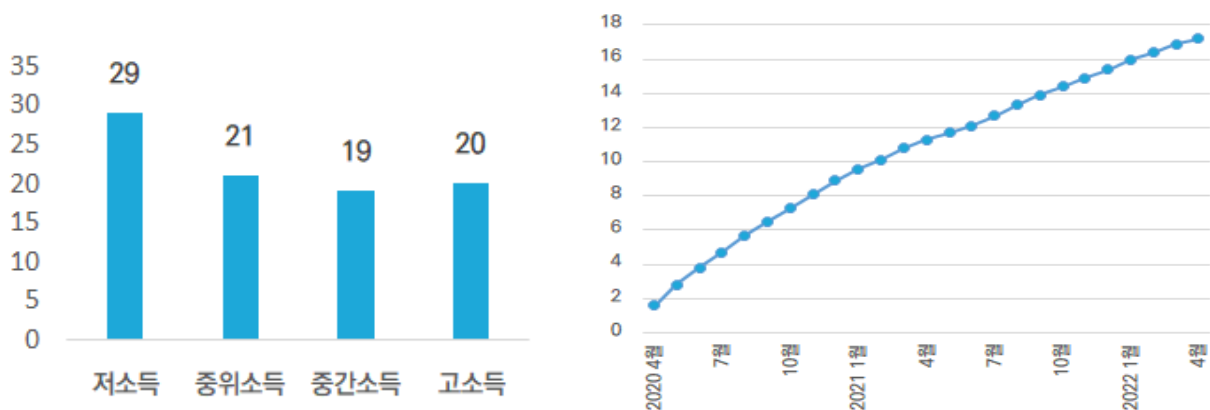
4) 개인 혹은 가족 구성원이 숙식, 의복과 같은 필수품을 구입하는 데 필요한 최소 연간 소득으로 2022년 기준 1인 가구 12,880달러임

5) KFF(2021. 1. 21), "The Coverage Gap: Uninsured Poor Adults in States that Do Not Expand Medicaid"

6) CMS(2022. 8. 31), "Streamlining Eligibility & Enrollment Notice of Propose Rulemaking(NPRM)"

- 등록 과정 간소화, 유지율 및 갱신율을 높이기 위한 갱신 기간 제한, 표준화된 메디케이드 프로세스 및 기록 보관 등을 통해 저소득층의 행정적 부담을 줄여 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보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
- FFCRA(Families First Coronavirus Response Act)를 통해 일시적으로 메디케이드의 정기적 자격 갱신 및 재결정 절차를 중단시켜 부적격자의 자격 해지를 금지함
- 2022년 5월 기준, 메디케이드 가입자는 1,770만 명으로 2020년 2월에 160만 명인 것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미국의 공중 보건 비상사태(Public Health Emergency; PHE) 기간 동안 메디케이드 등록을 의무화하여 종료일까지 의료 보장을 제공할 예정임⁷⁾

〈그림 1〉 코로나19로 인한 실업 및 소득 감소 경험 비율 〈그림 2〉 2020~2022년 메디케이드(Medicaid) 신규 등록자 수
(단위: %) (단위: M=Millions)



자료: Brookings(2020. 7. 13)

자료: KFF(2022. 9. 29)

○ 메디케이드 등록 기준 완화를 통해 미국 내 저소득층 건강 상태가 개선되었다는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음

- Health Services Research에 게재된 한 연구결과⁸⁾에 의하면, 가계소득이 연방 빈곤 수준 138% 미만인 19~64세 성인(N=179,135명)들이 코로나19로 인한 메디케이드 가입 기준 완화를 통해 정기적 의료서비스 이용률이 높아져 매우 우수하거나 양호한 건강상태를 보고하고 있음을 확인함
- Healthcare.com 설문조사⁹⁾에 따르면 조사 대상자 1,005명 중 22%가 코로나19 공중 보건 비상사태(PHE) 동안 메디케이드 가입이 더욱 쉬워짐에 따라 정기적 의료서비스를 더 많이 받았다고 응답함
- Sarah Miller et al.(2021) 연구결과,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메디케이드 가입 기준을 완화한 주에서는 55세에서 64세 성인 19,200명의 사망을 예방했고, 메디케이드 가입 기준을 확대하지 않은 주에서는 15,600명이 조기 사망함을 확인함¹⁰⁾

7) KFF(2022. 9. 29). "10 Things to Know About the Unwinding of the Medicaid Continuous Enrollment Requirement"

8) Alexandra Rakus MS Aparana Soni(2022. 11. 8), "Association between state Medicaid expansion status and health outcomes during the COVID-19 pandemic"

9) Medical Economics(2022. 11. 8), "Pandemic side effect: 22% of Americans got better health insurance"

10) Sarah Miller, Norman Johnson, and Laura Wherry(2021), "Medicaid and Mortality: New Evidence from Linked Survey and Administrative Data",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